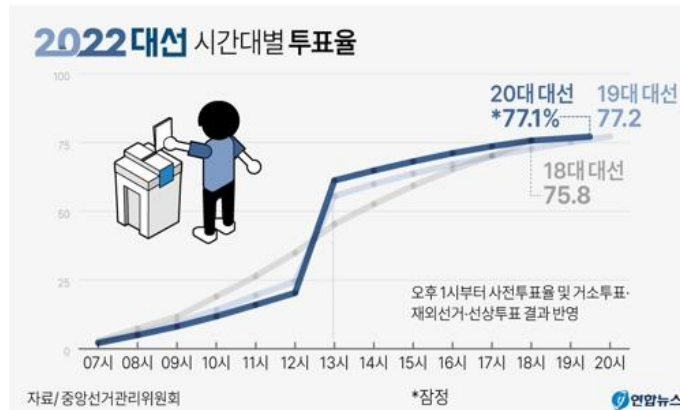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있었는가?

3·9대선 결과에서 보이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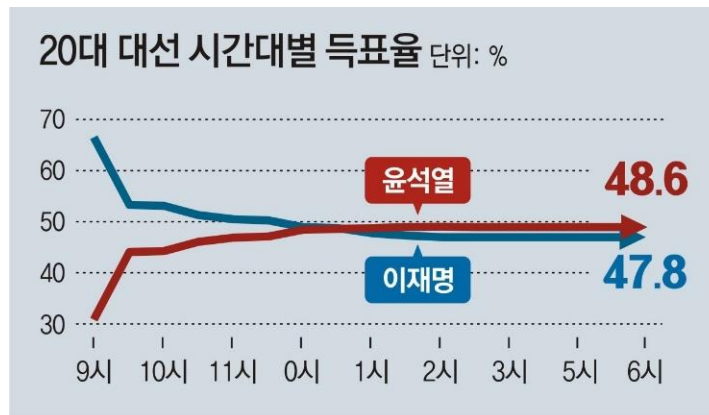
1. 박빙 승부 끝에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0.73%)로 승리

2022년 3월9일 치러진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종 개표결과에 의하면, 총 유권자 44,197,692명 중 34,067,853명이 투표하여 최종 투표율은 77.08%이었다.



<20대 대선 시간대별 투표율 (도표 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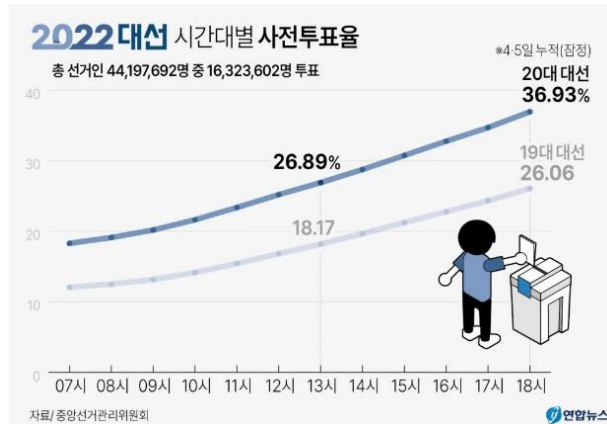
무효투표수 307,542명을 제외한 유효투표수 33,760,311명 중에서, 이재명 후보는 16,147,738표(47.83%)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16,394,815(48.56%)를 얻어 윤석열 후보가 247,077표(0.73%)차로 승리하였다.



<20대 대선 시간대별 득표율 (도표 출처: 한국일보)>

2.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

3월 4일~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16,323,602명이 투표하여, 역대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26.69%로 가장 높았던 지난 2020년 4·15총선보다도 10% 이상 더 높은 36.93%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며, 처음에 주저하던 국민의힘도 결국 사전투표 독려에 동참하였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일투표율이 40.15%임을 고려할 때, 유권자 두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라고 볼 수 있다.



<20대 대선 시간대별 득표율 (도표 출처: 한국일보)>

3.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는 최종 득표율을 정확히 예측

개표 직전에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방송3사 합동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로 윤석열 후보가 0.6% 우세한 것으로, 별도로 실시한 JTBC 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 48.4%, 윤석열 후보 47.7%로 이재명 후보가 0.7% 우세한 것으로 각각 예상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송3사 출구조사는 0.2% 이내, JTBC는 0.9%이내로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을 정확히 예측하였다.



<3월 9일 20대 대선 방송3사 및 JTBC 출구조사 발표 방송 장면>

4. 투표일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1~7.6% 이상 유리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3.3~3.9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실제 개표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3~8% 정도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일투표일 직전(3월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한국갤럽은 40.0% 대 46.0%, 리서치뷰에서는 44.5% 대 52.1%, 리얼미터는 47.1% 대 50.2%으로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였다.



〈20대 대선 투표일 직전 3대 여론조사 업체 조사 결과(도표 출처: 중앙일보)〉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의 전개...

이러한 대선 결과만을 보더라도,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러질 수 있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은 사전선거를 포함하여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정황과 물증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정선거의 의혹은 역시 사전투표 조작이다. 이런 의혹은 사전투표를 통해 이재명 표가 불법으로 대량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박빙의 개표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즉, 부정선거를 통해 사전투표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의혹이다.

이에 따라 415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만약 부정선거가 계획되었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수립되었고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추가득표를 설계하여 인위적으로 이를 반영한다.

이번 3.9대선에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공학 측면에서 실제로 이재명이 받은 표 보다 상당한 규모(최소한 300만표 이상)의 추가 득표가 조작되었다.

이는 정밀한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계산된 숫자로서, 6~7% 뒤지는 이재명이 1%이상의 표차로 윤석열을 이기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득표수는 대략 300만명이다.

2. 이재명 후보의 박빙승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여론 조성

이것은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여권 지도자 및 일부 언론들에 의해 "이재명과 윤석열이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며, 이재명이 1% 이내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게 하여 국민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투표일 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10% 우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권 지도자들(이해찬, 우상호, 송영길, 유시민 등)은 사전투표 결과를 미리 아는 듯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3. 필요한 추가득표의 대부분을 사전투표에서 인위적으로 확보

사전투표 이후 당일투표 이전 공백기 3일 동안에, 사전투표함 CCTV 감시가 없는 상황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사전투표함 내용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실제 일부 지방선관위, CCTV가 없거나 가려진 공간에 사전투표함을 장시간 보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3.7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되었고, 3.5일에는 부정선거감시단이 제주도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된 사전투표함 발견하였다. 또한 사전투표함 보관실에 24시간 CCTV를 설치하였으나,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감시단이 CCTV를 볼 수 없으므로 투표함 감시 취약시간(야간)이 존재한다고 지적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참관인이 상시 관찰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천개에 달하는 CCTV를 숫자가 참관인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도장'이 아닌, 선관위과 일괄 제작한 직인을 함으로써, 사전·사후에 사전투표용지를 불법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개인도장과 선관위 일괄 제작한 도장(예): 이번에는 투표관리관 이름 포함된 직인 사용하였다. 선관위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명선거 의지가 진정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부실하여 투표함 무단개봉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5명의 서명을 한사람이 대신 서명한 봉인지가 발견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선관위에서는 최초 빈 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해두어 나중에 봉인지를 떼었다 붙여도 구별할 수 없는 명분 마련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사전투표는 전자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투표한 인원수와 실제 기표된 투표용지 숫자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므로, 참관자가 있다 하더라도 투표자 없는 투표용지(유령투표), 복수투표(대리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처럼,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에 비해, 유령투표자 수 늘리기(불법 투표용지 투입 또는 여러 투표소에 다니면서 복수 대리투표 등)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는 점이 제기되었다.

4. 치밀하게 계산된 사전출구조사를 발표하여 박빙승부를 받아들이는 국민여론을 유도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사전투표 예상 득표를 조작·보정해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는 출구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실제 방송3사는 윤석열+0.6%, JTBC별도 출구조사는 이재명+0.7%로 발표함으로써, 만약 최종개표 결과에서 이재명이 1% 이내로 승리하였다면 국민들은 대부분 출구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5.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당일투표 조작 병행

선거 개표과정의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부정선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확진자 별도 투표방안 등을 활용하여 당일날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부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415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많은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지금은 415부정선거의 개연성을 국민들의 상당수가 인식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대규모 부정선거감시단이 활동 중인데, 만약 개표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면 걸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투표함 보관실 CCTV 설치, 사전투표함을 당일투표함 보다 먼저 개함하자는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이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기 위해 충분히 제도 개선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예전 415총선에서 상당한 수의 수도권 선거구에서 사전투표가 개표 후반에 열리자마자 불리했던 여당후보가 갑자기 유리해지는 상황이 많이 출현하여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민단체들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여 초반부터 이재명이 윤석열을 7~8% 앞서나가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덜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당일투표는 윤석열에게 유리하므로 당일 투표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재명의 우세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며 개표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 것이지만, 개표 종료시까지 전세가 역전되지 않고 1% 내외의 박빙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윤석열이 격차를 줄여가다가 결국 역전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국민들은 "윤석열이 참 아깝게 졌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라고 무리없이 인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의 개표 중계에서 이러한 장면이 그대로 나타났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개표 중후반 밤 1시경 윤석열 후보의 득표가 이재명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0.5~0.9%의 우세가 개표 막판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1% 이내의 간발의 우세를 지켜 결국 박빙으로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만약 치밀한 부정선거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왜 그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즉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속출하는 부정선거 정황 및 증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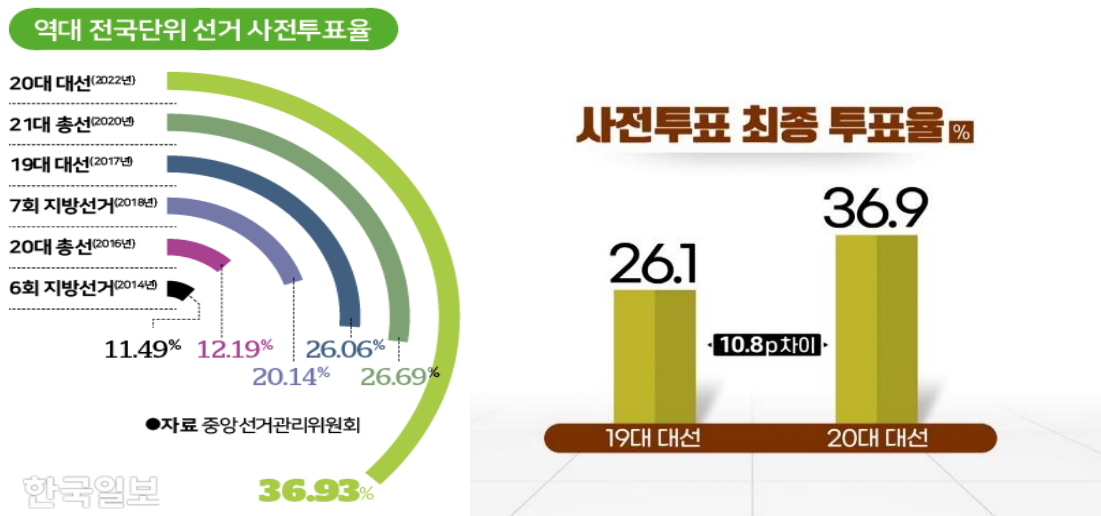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독려

원래 투표는 당일투표가 원칙이며 사전투표는 당일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선거에서는 과도하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하며 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뒤늦게 대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권 내부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과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5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금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여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사전투표를 이용한 선거조작이 더 용이한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도표 출처: 한국일보)〉

너무 정확한 출구조사 결과는 오히려 치밀한 선거조작의 증거일 뿐...

너무 정확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 득표율을 예상하였고, 별도로 실시한 JTBC 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 48.4%, 윤석열 후보 47.7%로 이재명 후보가 0.7% 우세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초박빙의 대선결과를 매우 정확한 예상으로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은 사전출구조사 방법이 현대화되어 정확성이 우수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출구조사는 당일투표에 대해서만 정해진 투표소에서 5명 당 1명씩 선별적으로 구두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당일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전체 투표결과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다. 출구조사팀은 전체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전화 조사를 통해 사전투표 결과를 예측하고 보정하여 출구조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와 같이 사전투표가 전체투표의 거의 절반(48%)에 해당하는 투표양상에서는 출구조사는 전체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어느정도 오차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출구조사는 당일투표일에만 실시하는 것이며 전국 350개 투표소 유권자 73,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전투표 예측은 10,000명 정도의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구조사결과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일투표의 결과이며, 사전투표 결과 예측은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당일투표에 대한 정확성 보다는 최종결과에 대한 예측이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최종결과 예측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전투표결과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사전투표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재명 51.7%, 윤석열 44.7%를 예측하였고, 당일 투표는 이재명 44.1%, 윤석열은 51.9%를 예측하였으며, 총 예상 득표율은 이재명 48.8%, 윤석열 48.4%를 예측하였다.

한편, 선관위의 개표결과에서 산출한 두 후보의 실제 득표율을 보면, 사전투표는 이재명 52.57%, 윤석열 43.82%, 당일투표는 이재명 39.08%, 윤석열 56.24%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이재명 47.8%, 윤석열은 48.6%이다.

구분	사전투표		당일투표		최종결과(종합)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방송3사 출구조사(예측)	51.7%	44.7%	44.1%	51.9%	47.8%	48.4%
실제 개표결과	52.6%	43.8%	39.1%	56.2%	47.8%	48.6%
출구조사 오차	-0.9%	+0.9%	5.0%	-4.3%	0.0%	0.2%

〈사전투표·당일투표·최종결과에 나타난 방송3사 출구조사의 오차 비교〉

이 결과를 분석하면 출구조사 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구조사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당일투표에서는 이재명은 5.0%, 윤석열은 -4.3%라는 큰 오차를 보인 반면, 덜 정확할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에 대한 오차는 이재명은 -0.9%, 윤석열은 +0.9%로 오히려 사전투표 예측이 더 정확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4~5% 범위의 부정확한 당일투표 결과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전투표결과를 포함하고 나서도, 최종 투표결과는 이재명은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윤석열은 0.2% 오차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출구조사에 대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출구조사는 당일투표 결과에 대해 4~5% 정도의 오차를 갖는 조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0.2% 범위내로 정확히 예측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확하지 않은 원천자료(당일투표 예측)를 가지고 이를 가공하여 매우 정확한 최종결과(최종투표)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이다. 만약 출구조사의 최종결과 예측의 정확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당일투표 결과 예측도 이에 비슷하게 정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만약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출구조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매우 정확했다는 평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출구조사가 과연 정확했다면, 적어도 당일투표결과 예측은 정확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정선거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선택적 조치...

사실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확실히 해도 부정투표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CCTV에 의한 사전투표함 감시, 확실한 봉인지 사용,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사용, 당일 개표 때 사전투표함을 당일투표함보다 먼저 개함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당일투표함에 앞서 개함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지난 4·15총선 개표과정에서 당일 투표가 먼저 개함된 이후 사전투표함이 개함되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역전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크게 대두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선거 감시활동 단체와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선관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선택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허술한 사전투표함 CCTV 감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지만, 이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사전투표함의 CCTV감시가 유효하려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전투표함이 도착할 때까지는 호송경찰과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이송하고, 지역선관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CCTV가 있는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며, 개표 당일 개표소로 이동할 때에도 호송경찰이 수행하고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개표함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CCTV를 설치하였으나,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선관위 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있어, 선관위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는 감시단원이 모니터를 감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종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참관인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하나, 수천개에 해당하는 CCTV를 몇 명의 참관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없으므로 이 또한 CCTV를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사전투표 보관소에서 CCTV이 감시를 피해 투표함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20 대선에서 최초로 설치된 중앙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종합관제센터'〉

실제로 일부 지방선관위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대량의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감시단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CCTV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방선관위의 사무국장의 사무실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된다는 것 자체가 절차를 어긋나는 것인데, 여기에 CCTV를 종이컵으로 가리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른 사무국장 방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지금까지 지방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이 만약 있을 수 있는 투표함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이전 선거를 포함하여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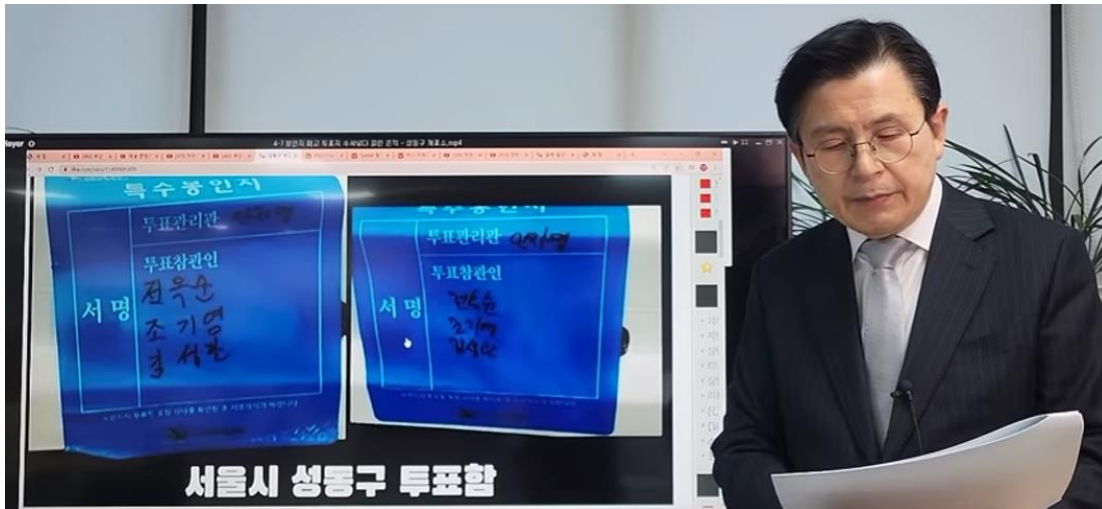
〈3.7일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발견된 사전투표함 및 종이로 가려진 CCTV〉



〈3.5일 제주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발견된 사전투표함 및 국민의힘(원희룡) 향의 방문 장면〉

봉인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봉인지 성능 및 허술한 관리...

지난 415선거에서 부실한 봉인지에 대한 의혹이 많았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특수봉인지라고 표기된 홀로그램 봉인지를 사용함으로써 봉인지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용된 소위 특수봉인지는 봉인지를 부착했다가 다시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아 봉인지로서의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다.



〈투표를 마친 직후 촬영한 봉인지 서명과 투표함 개봉시 서명이 다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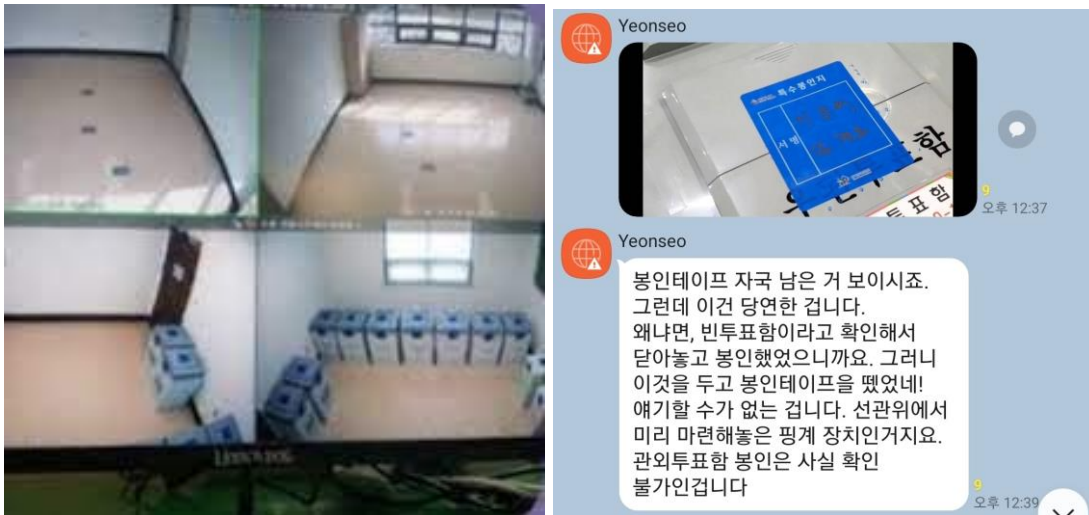


〈한사람의 필체로 일괄 서명한 봉인지 및 개봉 이전에 여러 번 봉인지를 떼어낸 흔적이 있는 봉인지 사례〉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하고, 개봉할 때 까지는 투표함이 열리지 않아야 하고 만약 투표함이 열렸다면 봉인지가 훼손되어야 한다. 그러나 봉인지는 그 역할을 할 만큼 봉인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선관위에서는 사전에 빈투표함에 봉인지를

미리 부착해두어 투표 당일 봉인지를 떼어내고 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투표지를 떼어낸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기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어있는 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시단이 과연 투표함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니,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였다. 투표함에 사전에 불법투표지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 투표함은 불투명하여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함에 미리 불법투표지를 투입해둔 상태로 봉인지를 붙혀 두었다가 투표당일 해당 투표함의 봉인지를 떼어낸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 데, 이미 투표함에 불법투표지가 투입되어 있었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표함을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할 수도 있고,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투표일 이전에 이미 봉인지가 부착된 상태로 보관된 투표함(빈투표함 여부 확인 거부)〉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직인을 사용...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개인도장이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일괄 제작하여 투표일 이전에 지방 선관위에 내려보내는 직인형태의 도장을 사용함으로써 사전에 또는 사후에 불법투표지를 대량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이라고 주장이 많은데고 굳이 이를 거부하고 직인형태의 도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불법투표지의 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약속이 무색하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진정성이 있다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도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라야한다. 굳이 일괄제작한 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 투표지 제작이 가능한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명시한 이유는 정해진 시간(투표시간)과 정해진 공간(투표소)이 아니면, 사전 또는 사후에 임의의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게 하자는 것이 입법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부정선거 감시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해온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 요구를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지난 415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려보낸 직인 형태의 도장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방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별도 투표를 활용한 불법투표지 투입 가능성 ...

금번 코로나 확진자에 의한 투표방식은 선관위가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정 시간을 정해 확진자가 정상적인 투표지 기표소가 아닌, 대기줄 앞에 박스 등을 갖다놓고 기표한 투표지를 박스 등에 넣으면 선관위 직원 등이 이를 수거하여 정식 투표함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참관인이나 경찰 등 객관적인 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물리적으로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대신 투표함에 투입한다는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현지에서는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보니, 그 안에 특종후보(이재명)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있었다는 사례가 있다. 신사1동주민센터에서 이미 1번에 기표된 용지를 받은 사람은 3명이었으며, 양천구 신월6동에서도 1번에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용지를 발견하였다. 선관위는 봉투 분배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현장 및 1번 후보로 이미 기표된 투표지 발견〉

사전투표일 2일차에 이러한 현장에서의 잡음이 불거지고 직접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불만이 대거 표출되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슈화 되었다. 이에 따라 본투표에서는 선관위가 최초 의도했던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만약 이러한 절차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의도하였다면 그 의도가 분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전 또는 당일투표에서 불법으로 특정후보의 표를 더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되어 불법투표용지의 투입이 의심되는 상황…

3월 9일, 인천 남동구와 부산 영도구의 개표 현장에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되어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하여 개표가 일시중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은 "일부 개함부에서 밝은 흰색과 옅은 노란색 등 각기 다른 색상의 사전투표지가 나왔다"며 항의하였으며, 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약간 다른 이유는 투표 용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 색이 다른 것" 또는

“롤용지는 생산시기·보관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일관되지 않은 해명을 하였으며, 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정상적으로 인쇄돼 있는 정규의 투표용지”라며 일방적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다.



〈3월 9일, 인천 남동지역 투표소에서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대량 발견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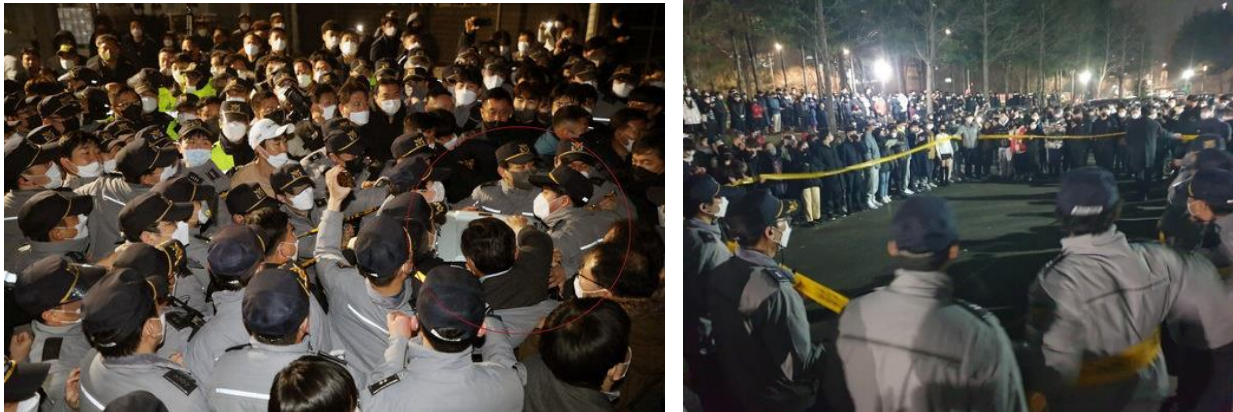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투표용지는 특수제작된 흰색 용지로 '무림'과 '한솔제지' 등 지정된 소수의 업체에서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통과한 투표용지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정밀한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감시 단체에서는 특정 개표소에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외부에서 불법으로 제작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의심되며 '부정선거의 스모킹건'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월 28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의심스러운 투표함을 옮기는 현장을 발견, 부정선거 소동으로 번져…

3월 9일 오후 8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운영한 부정선거감시단은 부평구 개표소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남녀가 호송경찰이나 참관인이 없는 상태로 길거리에서 투표함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하는 소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으며 오후 11시까지 대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은 가로세로연구소, BJ톨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만명 이상이 실시간 시청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모여 "부정선거!"를 외치며 시위하는 양상으로까지 상황이 전개되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함은 공식 투표함이 맞고 부정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성명 불상의 다수인을 개표소 소요 및 교란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3월 9일, 부평구 개표소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투표함 이동 현장을 발견한 시민들의 소동 현장〉

부정선거 감시 단체들은 이날 논란이 되었던 특정 투표함 자체는 부정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는 있으나, 호송경찰이나 참관인이 없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등 적어도 투표함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외부에 노출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사전 투표소에서 실제 카운트한 투표인수보다 훨씬 많은 투표수 발견…

이번 대선에 8번 후보로 출마한 옥은호 후보는 사전투표소에 참관하는 본인 정당 소속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실제 사전투표자를 일일이 육안으로 카운팅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3월 5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직접 육안으로 투표자를 계수하여 기록한 투표자수는 4,713명이었는데, 투표종료 후 명부시스템에는 총투표자수가 5,044명으로 나타났다. 투표 중간 중간에 명부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 표차이가 투표진행 중에는 40표 이내로 큰 차이가 없었으니, 투표가 종료된 이후 총 누적 투표수가 갑자기 331표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c2ai8MxpU64>)

사전투표자수 계수록

시간	육안계수현황(시간별)			육안계수현황(누적)			명부시스템			비고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누계	관내	관외	누계	
6시-7시										
7시-8시	503	96	599	503	96	599				
8시-9시	256	60	316	759	156	915				
9시-10시	328	88	416	1,087	244	1,331	1,027	216	1,243	9:40
10시-11시	304	79	383	1,391	323	1,714				
11시-12시	305	91	396	1,696	414	2,110	1,664	394	2,058	11:40
12시-13시	341	98	439	2,037	512	2,549				
13시-14시	331	86	417	2,368	598	2,966	2,387	587	2,974	13:46
14시-15시	310	94	404	2,678	692	3,370				
15시-16시	315	85	400	2,993	777	3,770	3,037	773	3,810	15:42
16시-17시	272	98	370	3,265	875	4,140				
17시-18시	315	115	430	3,580	990	4,570				
확진자	143		143	3,723	990	4,713				
계	3,723	990	4,713	3,723	990	4,713	4,004	1,040	5,044	+331

〈사전투표 참관인이 육안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를 시간단위로 계수한 기록〉

또한, 일부 유튜버는 특정 투표소에 실시간 녹화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투표자의 투표소 출입을 녹화하였다. 3월 5일 경남 양산 삼성동 투표소를 녹화된 영상에서 실제 투표소에 들어간 투표자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2,072명이 투표하였는데,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로 회답받은 해당 투표소의 3월 5일 관내사전발급자수 2,788명, 관외사전발급자수 431명으로 전체 3,219명이었다. 이는 해당 투표소의 3월5일 하루의 사전투표수를 1,147표를 부풀린 것이다. 이것은 실제투표수의 55%에 해당하는 숫자로 녹화영상 촬영이나 확인과정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차이이다. 이 투표소만 따져볼 때 당일득표율은 이재명 40%, 윤석열 60%로 20%차이인 반면, 사전투표는 이재명 47%, 윤석열 53%로 6%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사전투표에서 유령투표를 투입하여 이재명의 득표율을 높인 결과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유튜버는 이 영상을 근거로 고발할 예정이라 한다.

(<https://m.youtube.com/watch?v=ia6u5llFgVA&feature=youtu.be>)



〈경남 양산 삼성동 투표소를 녹화한 영상을 보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를 카운트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득표양상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대통령 투표 양상…

이번 대선에서는 4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실시되었다. 같은 날, 같은 유권자가 같은 투표소에서 치러진 선거결과이기 때문에 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어느 한 당을 지지한 유권자가 대통령 투표용지에는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드문 일이다.

서울 서초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출마하였다. 서초구의 대통령 선거 투표결과는 이재명 32%, 윤석열 65%로 윤석열 후보가 +33% 우세를 보였으며,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 국민의힘 후보가 73%를 얻어 국민의힘 후보가 +49% 우세하였다. 같은 날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을 볼 때 16%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교차투표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진영논리로 분열되어 있는 이번 투표 양상에 비추어 상식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활발한 시민단체들의 부정선거감시활동…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4·15부정선거 의혹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였다. 황교안 전총리는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여 투표현장을 감시하였으며, 가로세로연구소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선관위와 개표소 주변을 24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감시하는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였다. 부정선거 규명을 모토로 세워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옥은호 미디어 A 대표는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 참관인을 운영하였고, 부정선거 규명을 줄곧 주장해왔던 민경욱 전의원 역시 국투본 활동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하였다.

한국보수주의연합(CPAC)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는 공동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주최하여 시민단체들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 운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2월 25일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서 낭독 장면〉

그 외에도 공병호TV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이후, 이러한 단체들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의 결과를 종합하여 백서를 만들고, 향후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명선거 제도 구축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이번 대선이 윤석열 후보의 0.73% 초박빙 승리는 부정선거 관점에서 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의 득표율의 현저한 차이,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박빙의 승부, 출구조사 조작 가능성 대두,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등은 지난 4·15부정선거 의혹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가오는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부정선거 이슈는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국민적 과제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명선거 제도를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